

제 3 형 갑상연골성형술에 의한 변성발성장애의 치험 1례 (A Case of Mutational Dysphonia Treated with Type III Thyroplasty)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음성언어의학연구소

최홍식 · 조창현* · 김광문

변성발성장애(Mutational dysphonia)는 원인이 확실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변성기에 성호르몬의 작용에 의한 정상적인 후두의 발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임상 양상은 대개 성인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적으로 음성의 기본주파수(fundamental frequency)가 높아서 여자 목소리에 가깝게 들린다는 것을 주 증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학적 검사상 성대의 움직임은 정상이나, 성대의 두께가 얇거나, 성대의 길이가 짧고 긴장도가 증가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음성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으며, Isshiki 가 제 3 형 갑상연골성형술로 효과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고 보고한 이래, 다수의 보고자들에 의해 시도되어 왔다.

그동안 저자들에 의하여 시술되었던 다수의 환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1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수술전의 모음 발생 시의 기본주파수가 272Hz 였던 33세 남자 환자였으며 우측 갑상연골의 중간 부분을 수직으로 5mm의 넓이로 적출해 내는 제 3 형 갑상연골성형술을 국소마취 하에 시행하였다. 수술 후 2개월의 추적 조사 결과 기본주파수가 130Hz의 성인 남자 정상 범위로 호전되었으며, 수술 전후의 비디오 스트로보스코피 소견, 공기역학적 검사 소견, 전기성문파형검사 소견, 음향검사 소견들을 보고하고자 한다.